"얘들아, 어서 와!"… 농어촌유학 시범 사업 출발

1일 평대초 새 학기 서울·경기서 유학생 12명 합류
가족 체류형 모델 도입… 월 유학경비 지원도 병행
김광수 교육감 "작은학교 살리고 새로운 배움터 제공"

"얘들아, 어서 와!"

1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평대초 교문 앞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알록달록 새 책가방을 멘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서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고길철 교장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낯선 교정에 발을 들인 '농어촌 유학생'들도 부모의 손을 꼭 잡은 채 수줍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추진하는 농어촌유학 사업에 참여한 8개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인 평대초에서 이날 새 학기가 시작됐다. 서울 등지에서 온 6가구 12명의 유학생이 합류하면서, 평대초 학생 수는 61명에서 73명으로 늘었다. 유학생 가족 중 유치원생 1명은 평대초 병설유치원에 전입했다.

개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는 따뜻한 환영 시간이 이어졌다. 기존 학생들이 교실 분위기와 학급 규칙을 새 친구들에게 직접 설명했고, 유학생들은 차례로 자신을 소개하며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맞이했고, 교실 안은 금세 설렘과 함께 웃음으로 가득찼다.

1학년 교실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평대초가 올해부터 글로벌역량학교로 지정·운영되면서,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이 이뤄졌다. 아이들은 처음 배우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따라 했으며, 선생님의 질문에도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경기도에서 전학 온 5학년 강세현 학생은 "제주에 오면서 주말 등 여가시간에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대된다"면서 "전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아서 여러가지 체험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전학 온 3학년 오세은 학생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추억을 쌓고 싶다"고 했다.

오세은 학생의 어머니 홍지명 씨는 "아이가 여름학기부터 수업을 들어 조금은 적응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니 기대가 크다"며 "서울에서는 1400명이 넘는 큰 학교에 다녔는데, 이번에는 고학년이 되기 전 여유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유학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농어촌유학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살리고,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배움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는 올해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가족체류형' 모델을 도입했으며, 가구당 월 30만원(자녀 1인당 10만원 추가)의 유학경비를 지원한다. 서울에서 온 가정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동일 조건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번 2학기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도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제주지역 농어촌유학 모집에는 7개 시·도에서 92가구, 136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31가구 49명이 선정돼 8개 초등학교에 배정됐다.

학교별 전학생 수는 제주시 귀덕초 4가구 6명, 송당초 3가구 5명, 하도초 2가구 4명, 서귀포시 성읍초 6가구 8명, 신례초, 2가구 2명, 창천초 4가구 5명, 흥산초 4가구 7명이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농어촌유학 시범사업이 시작된 1일 평대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 수업을 듣고 있다. 김채현기자

내일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 무더위 지속

3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에는 2일 낮(정오~오후 3시)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강수대의 폭이 좁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이어 3일 오전(6~9시)부터 늦은 오후(3~6시)까지 곳에 따라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제주(산지 제외)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올해 열대야 발생 일수는 서귀포 59일, 제주 56일로 지난해(서귀포 68일, 제주 75일)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 중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의과 공보의 충원율 45.5% 그쳐

11명 요청했으나 5명만 배치… 공공의료 공백 우려
5년 전보다 충원율 29.5%p 감소… "대책 마련 시급"

제주지역 의료 소외 지역을 담당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올해 충원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의과 공보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45.5%이다. 요청 공보의 수는 11명이었으나 실제 배치 인원은 5명에 그쳤다.

5년 전인 2020년에는 공보의 16명 배치를 요청해 12명이 배치돼 충원율이 75%였다.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충원율이 42.9%까지 떨어졌으나, 2022년 57.9%, 2023년 56.3%, 지난해 85.7% 등 회복하는 추세였다.

올해 제주지역 공보의 충원율은 지난해 대비 40.2%p, 2020년 대비 29.5%p 감소했다.

공보의는 병역제도 중 하나로 보충역의 한 종류다. 군 입영 대상자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3년간 지방 보건소·보건지소·의료원 등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윤 의원은 "일반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시 현직 해녀 중 89% 60세 이상

2021년 말 2069명에서 현재 1423명으로 감소

제주시 지역의 현직해녀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10명 중 9명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현직해녀는 142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4명 ▷30대 6명 ▷40대 43명 ▷50대 101명 ▷60대 448명 ▷70대 617명 ▷80세 이상 204명으로, 60세 이상이 89.2%(1269명)를 차지한다. 현직해녀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며 어업 관련 소득을 120만원 이상 올리는 해녀를 말한다. 전직해녀는 2590명인데, 고령이나 병환 등으로 조업활동은 하지 않지만 어촌계원으로 등록된 해녀다.

제주시 지역 현직 해녀는 ▷2021년 2069명 ▷2022년 1954명 ▷2023년 1658명 ▷2024년 1527명에 이어 올해 8월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신규 해녀는 늘고 있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해녀 양성을 위해 ▷어촌계 가입비(1인당 100만원) ▷초기 정착금(3년 간 월 50만원) ▷해녀복과 잠수장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개설한 한수풀 해녀학교에서 올해까지 배출한 졸업생은 910명. 올해는 입학생 46명 중 41명이 해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졸업했다. 졸업생 거주지는 도내 29명, 도외 12명인데 외국인 학생도 포함돼 해녀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졸업생들은 해녀학교와 관내 어촌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 해녀활동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한수풀 해녀학교 졸업생 가운데 70명은 어촌계에 가입해 해녀로 활동 중이다. 시는 신규 해녀 유입이 많은 어촌계에는 보조사업 우선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지난해 제주대학교 의대 중도 이탈 12명

종로학원, 1일 전국 의과대학 분석결과 발표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다 중도에 이탈한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로학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도내 의대 중도 이탈 학생은 12명으로, 2023년 4명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연도별 도내 의대 중도 이탈 학생 수는 2020년 3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4명, 2024년 12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의대 중도 이탈 현상은 크게 늘었다. 전국 39개 의대에서 지난해 중도 이탈 학생 수는 386명으로, 2023년 201명 대비 92% 증가했다. 특히 지방권 의대 중도 이탈이 309명으로, 서울·경인권 77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김채현기자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장 봉 길
(애월읍 하가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3대 회장)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읍이장단협의회
회 장 김 홍 대 외 24개리 이장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장 봉 길
(애월읍 하가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3대 회장)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농협 영농회장협의회
회장 김 수 한 외 12개리 영농회장 일동

취 축 득
CONGRATULATIONS
부산대 공학박사 학위

임 현 아
부 : 임영호 · 모 : 김명숙
부산대 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삼촌 윤삼·경환
이 모 명애·명자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한라대학교 부총장겸
한라국제컨벤션본부장

고 관 용
(사)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사협회 자문위원
제주한라대학교 부총장 겸 한라컨벤션센터본부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사협회
회 장 이 복 임 외 회원 일동